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39. 페스타나, 포르투-골드스미스 호텔

1월 19일이 밝았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런던으로 떠나야 하는 날인데 하루 더 있기로 한 일정 변경 때문에 괜히 마음이 느긋해서 아침에 실컷 자고 일어났다. 밖은 흐린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다. 우리는 이사를 해야 하므로 가방을 다 찬 다음 조식을 먹으러 갔다. 어제와 동일한 메뉴였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건 먹지 않고 포르투갈 스타일로 진한 밀크커피와 함께 두툼하게 썰어 놓은 포르투갈 빵만 한 조각씩 먹었다.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으니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마치 잡곡밥을 씹어 먹는 느낌이었다.

테스코베르타스 호텔에서 묵은 지난 2박 3일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호텔 문을 나서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바로 강변이 나오는 위치에 동굴처럼 아늑해서 깊은 수면을 취하며 쉴 수 있었던 조용한 방, 조출하지만 정갈하고 맛있었던 조식까지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던 작은 호텔이었다. 하루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또 다른 호텔로 이사를 생각을 하니 그것도 즐겁고 재미있었다. 우리의 새 숙소는 '페스타나, 포르투-골드스미스' 라는 이름의 역시 자그마한 호텔이었다.

우리는 조식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마저 짐을 챙긴 다음 체크아웃을 했다. 구글맵 검색을 해 보니 '페스타나, 포르투-골드스미스 호텔' 은 걸어서 약 15 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이틀 간 포르투 구시가지를 걸어 다녀 보았기 때문에 짐가방을 끌면서 언덕을 오르내리기 싫어서 택시를 불렀다. 호텔 프런트에 부탁해서 불렀더니 택시는 곧 도착했다. 우리는 테스코베르타스 호텔을 나와 '페스타나, 포르투-골드스미스' 호텔을 향해 택시에 올라탔다.

포르투의 오전 날씨는 어느새 활짝 개서 파란 하늘에 평한 햇빛이 눈부시었다. 우리를 태운 택시는 언덕을 빙글빙글 돌며 올라갔다. 가는 길에 성 프란치스코 교회와 엔리케 왕자 동상이 서 있는 '자르당 두 인판치 동 엔리크(Jardim do Infante Dom Henrique)' 가든을 지나갔다. 물론 우리가

알 턱이 없어서 회색 눈썹에 검은 찰테 안경을 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서 알았다.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두 곳 다 와 보고 싶었는데 가능할까? 포르투를 구석구석 돌아 보려면 한 달 째는 눌러 앉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페스타나, 포르투-골드스미스 호텔은 클레리구 교회로 올라가는 언덕 오르막 골목길에 있었다. 5층 정도 되는 낮고 자그마한 건물이었다. 우리가 가방을 끌면서 들어가니 프론트에 서 있던 청년이 얼른 뛰어 나와 도와 주었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검은 곱슬머리 검은 눈동자가 인상적인 잘생긴 젊은이였다. 유럽 사람들 중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체구가 제일 작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포르투갈 사람들은 키도 몸집도 그리 크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도 대부분 마른 몸매에 키도 커 봐야 175센티 정도로 180이 넘어가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가까이서 보니 눈이 더 커다란 청년 직원이 객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체크인인 오후 3시인데 우리가 너무 일찍 오기는 했다. 프론트 앞 로비에 앉아 기다린지 10분도 되지 않아 청년 직원이 키카드를 가지고 왔다. 커다란 검은 눈에 수줍어 하는 태도가 어쩐지 어젯밤 강변 카페의 소년 같았다. 우리 방은 5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 왔다. 5층에는 객실이 3개밖에 없는 것 같았다. 우리 방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간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예약을 할 때 딜럭스 객실로 했는데 우리 앞에 나타난 방은 딜럭스 급이라고 보기에 너무 넓고 호사스럽고 환했다. 5층 꼭대기에 위치한데다 프렌치 도어를 열고 걸어나가면 바로 테라스로 연결되는 펜트 하우스 같은 방이었다. 나는 프론트에 전화를 해서 이 방이 내가 예약한 방이 맞느냐고 물어 보았다. "마담, 예약하신 딜럭스 객실에서 업그레이드 해 드렸습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프론트 청년 직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란! 포르투 마지막 날. 정말 멋지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714) 224-8394 OC**

## Grand OPENING

Beauty Salon

얼바인 미셀신이 플러튼에 오픈

- 스페셜 커트
- 디지털 펌
- 셋팅 펌
- 토탈컬러

### 헤어라인

<상담&예약>  
**714.600.6235**  
 10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이광혁 내과 : 일반내과 전문의

# (JOHN K. LEE, M.D.) 노인과 : 메디케어 전문의

## 건강 검진 스페셜 \$149

1. 내과 전문의 상담, 진찰 및 치료 (1회)
2. 종합혈액검사: 혈당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호르몬검사, 종합콜레스테롤검사, 중성지방검사, 전해질검사, 혈중단백질검사, 칼슘검사, 빈혈검사, 백혈구검사, 적혈구검사, 혈소판검사, 요산검사, 지방간검사, 당화혈색소(HbA1c)
3. 정밀소변검사: Color, Character, Specific Gravity, PH, Glucose, RBC, Protein Ketones, Blood, Urobilinogen, Nitrite, WBC, Bilirubin, Epithelial Cells, Bacteria, Casts, Crystals

이민국(USCIS) 신체검사 지정병원

**John K. Lee, M.D.**  
 미국 내과 보드 전문의  
 미국 노인과 보드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CAQ in Geriatric Medicine  
 Member,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Member, American Geriatrics Society  
 Member,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진료시간 : 월 - 금: 8:30am ~ 5:00pm 토, 일: Closed

**Tel: 714.879.8700**  
 400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각종보험(PPO), 메디케어 플랜 받습니다.